

'26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각료 이사회 참석 및 주요 인사 면담 결과

- 허장 2차관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각료이사회에서 기조 발언을 통해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과 세계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
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수석 이코노미스트·프랑스 경제재정부·중앙은행 고위급 면담 통해 한국경제 동향 및 한국-프랑스 양자 경제협력 방안 등 논의

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6.3~6.4일 이틀 동안 진행된 경제개발협력기구 각료이사회*에 참석하고, 이를 계기로 경제개발협력기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및 프랑스 경제재정부 재무총국장,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와 면담을 가졌다.

* 38개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재무·경제·외교장관 등 각료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1년간 경제개발협력기구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

[①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]

한국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0주년으로 각료이사회회의 부의장국*을 수임하여, 의제 선정 등 논의 과정을 주도하였다. 허 차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과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. 주요 협력 방안으로 ①고립이 아닌 연결을 통한 '개방성과 규범에 기반한 협력', ②민간의 창의 증진을 위한 '혁신과 생산성 제고', ③인공지능(AI) 및 기후변화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'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력'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. 아울러, 한국이 글로벌 현안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,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.

* 한(韓) 의장단 과거 사례 : 의장국 1회('09년), 부의장국 5회('98, '06, '15, '19, '21년 상반기)

허 차관이 주재한 “경쟁력 및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체계 개선” 토론회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경쟁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①규제 단순화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, ②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글로벌 규제 협력, ③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데이터 협의체(거버넌스) 구축 등의 필요성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가이드라인 제공 및 표준 개발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.

[② 경제협력개발기구, 프랑스 경제재정부·중앙은행 등 양자 면담]

허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하여 프랑스 경제재정부·중앙은행의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, 주요 경제 현안과 양자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.

스테파노 스카르페타(Stefano Scarpetta)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석 이코노미스트와의 면담에서 허 차관은 수출 호조와 추경 등 적극적 정책 노력에 힘입어 한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(1.7%)을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견고함을 설명하였고, 경제협력개발기구 측도 한국의 '26년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, 특히 이번 각료이사회 계기로 한국의 '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.7%에서 2.6%로 높였다고 밝혔다.

베르트랑 뒤몽(Bertrand Dumont) 프랑스 경제재정부 재무총국장, 아녜스 베네시 케레(Agnès Bénassy-Quéré)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와의 면담에서 양측은 지난 4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양국간 경제협력 동력(모멘텀)을 한층 공고히 하고, 향후 주요7개국(G7), 주요20개국(G20) 등 협력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는 등 양국 간 금융·경제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. 또한, 양국은 개발도상국 개발을 위해 공적개발원조(ODA) 외 민간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, 이를 위해 개발금융 분야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.

담당 부서	대외경제국	책임자	과 장	강병중 (044-215-7630)
	국제경제과	담당자	사무관	남궁향 (hyangchos@korea.kr)